



2024.11-12



Canadian National Baptist Convention

에드먼튼한인침례교회

EDMONTON KOREAN BAPTIST CHURCH

가정예배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



이 세상의 정치가들은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국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의 필수 요소는 건전한 국민입니다. 영토와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 막강한 군대 그리고 건전한 법의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전한 시민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각 가정과 개인이 올바른 자질을 갖추어 나갈 때 국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바른 원칙과 좋은 습관을 갖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교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파괴주의자들은 가정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부당한 행위와 여성의 권리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폐기시키려고 합니다. 이혼을 부추기고 아이들의 최상위 보호자인 부모를 추방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정해진 시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에 밤중에 쓸데없이 나돌아 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부지런하고 사려 깊고 사랑이 많으며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인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창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가정 교육은 가족에게 명하신 의무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정부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올바르게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주는 가정 예배는 공공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협하는 대중의 악은 대개 반항심에서 비롯되는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 싹틔웁니다.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무법자가 되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은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약화되면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질서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더하거나 법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권위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줄 때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정예배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중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자기 의무로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딤후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심오한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67:5-7] 하나님이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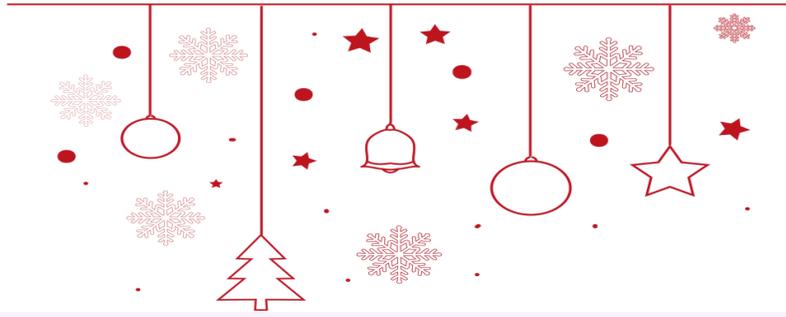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제임스 W. 알렉산더 미션월드



촌 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따라하는 가정예배, 가정예배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1-6

요셉의 형통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0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0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0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0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0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0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말씀나눔

1.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곁에 계십니다. 고난이 계속됨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지켜보는 사람 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형통함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신 임을 받은 요셉은 금세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리, 가정과 일터, 또 만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형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 요셉의 이야기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 로, 때로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기치 않은 고난의 삶에도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애써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 에 나아가는 꾸준함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성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 없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형통함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11월

둘째주



유혹을 이긴 요셉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7-20

- 0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0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0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말씀나눔

1.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유능하게 관리감독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는 그런 요셉을 좋아했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다윗은 보디발의 총 성스러운 종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었기에 계속되는 그녀의 요 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하자 요셉은 옷을 벗어 놓고 도망쳤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 장 좋은 방법은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2.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겼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로 요셉을 범죄자로 만들 었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으려고 했고 그녀가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은 분노했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때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유지하려면 ‘코람데 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셉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과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의 생각을 표현해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11월

셋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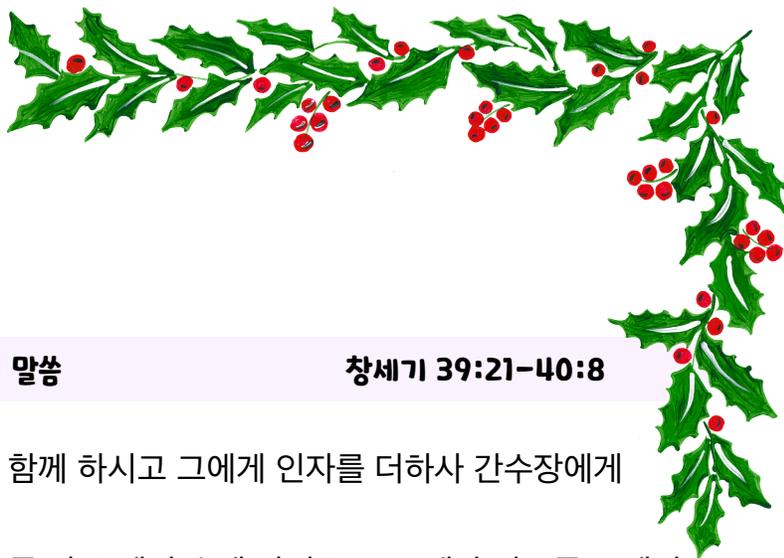
감옥에서도 형통한 요셉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21-40:8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01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 한지라

0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굶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03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04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05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06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07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0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 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말씀나눔

1.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서도 형통케 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2. 요셉이 관리하는 감옥에 왕의 고위급 관리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이상한 꿈을 꾸고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자신에게 꿈을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의 지경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가장 비참하고 힘든 자리도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인정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11월

넷째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9-23

09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 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 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 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 나이다

16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 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19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 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20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 니라

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 렸고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말씀나눔

1.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 수단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함께 갇혀 있던 애굽의 고위 관리들의 꿈을 풀이해 줌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사면되어 복직될 것이라 꿈을 풀이해 주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14절) 하지만 그의 이러 한 기대는 이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되었지만, 그가 요셉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향한 기대는 언제든지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 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요셉은 그 후로도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기대와 소망은 점점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 지 못하고 그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으로 가득한 기다림의 시간에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꾸었던 요셉 의 꿈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또 장차 바로가 꾸게 될 꿈도 모두 요셉을 향 한 하나님의 꿈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좌절과 낙담이 가득한 기 다림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결코 멈 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만약 요셉의 형들 중 한 명이었다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12월

첫째주



청년아 일어나라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11-17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나눔



1.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셨을 때 큰 슬픔에 빠진 장례의 행렬을 보셨습니다. 과부로 지내며 독자만 키우던 한 어머니의 아들의 장례였습니다. 당시 과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독자는 유일한 그녀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2. 예수님은 장례의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죽어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관에서 나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일으켰기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식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 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빼고 상식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나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12월

둘째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18-30

당신입니까?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 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20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쭙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21 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말씀나눔

1. 헤롯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소식에 대해 듣게 됩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요한은 감옥에 갇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야가 맞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61장의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감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며 답을 주십니다. 무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침례 요한은 메시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 받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나 답답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12월

셋째주

향유를 부은 여인



찬송가

28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36-50

-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 37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 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 39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 41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 44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 48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49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나눔

1. 한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 하나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의 집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무리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그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했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도리어 감사와 감격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2. 누가복음에는 소외되고, 하찮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째서 예수님이 추악한 세리, 더러운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을 본보기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사건과 빛을 탐감 받은 사람의 예화를 통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고,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없이 기뻐할 일이지, 나의 기준과 잣대로 재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모셨지만 풍성한 교제도 없었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도 없었던 시몬은 여인을 통해서 자신과 주님과와의 관계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까? 나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12월

넷째주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14

- 0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 0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 0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 0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 0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 0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 0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 0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 0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지라
-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나눔

1.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누 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세계사의 한 등장인물과 연결시킵니다. 세계의 중심이 로마라고 여겼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 스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 세상의 구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 정한 구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지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세계사의 한 가운데 들 어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기뻐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 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 양하는 복된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2.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은 호적 조사를 위해 각기 고향으 로 갔고, 이에 요셉과 마리아 역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 날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는 천사의 예언(눅 1:32-33)대 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 온 땅의 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 이 누추한 여관에조차 머물지 못하고, 마굿간의 구유에 누이신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평화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온전케 하시는 참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아내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매일의 일상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하는 **자녀이름**야!
자녀이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자녀이름**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빠, 엄마**)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이름**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이름이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이름**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이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축복기도

사랑의 주님!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은혜를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걱정과 염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 날마다 힘써 모여 예배하는 교회,
부지런히 흠어져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주기도문

edkbc.org

